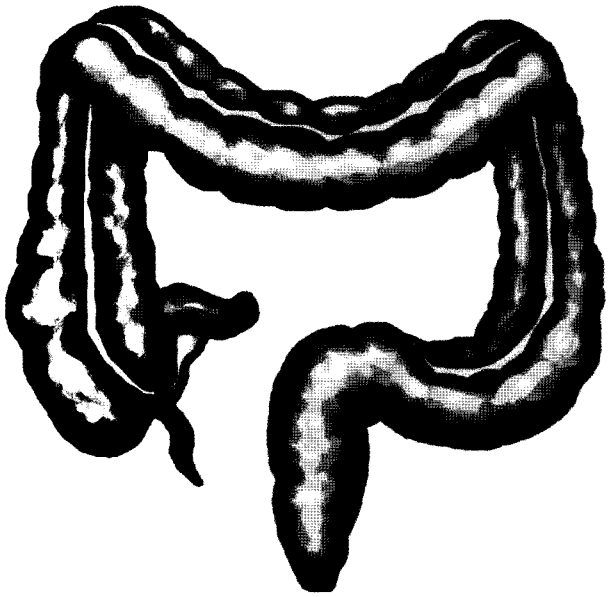
당뇨, 당뇨관리 그리고 암 발병 위험



당뇨병이 세계적으로 급증하면서 당뇨와 암의 관계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여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발표 된 논문들에 의하면 당뇨병 전문 의료진들과 연구원 등이 다양한 각도로 연구한 것을 엿볼 수 있는데, 이에 Andrew Renehan은 주요 논점들을 정리했다.

비만과 신체활동 부족과 같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요소들은 다양한 종류의 암을 야기하는데, 불행히도 제 2형 당뇨병도 같은 작용을 한다. 이에 따라 암 역학자들에서 당뇨병과 암 발생 위험 사이의 잠재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과거 5년 동안 분석된 연구결과들이 발표 됐는데, 이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당뇨병은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방광암, 간과 췌장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제 1형 당뇨병환자와 제 2형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이전 논문들 보다 이후의 논문들에서는 이들 그룹에 대한 정의가 더 잘 나타났는데, 제 1형 당뇨병환자에서는 암과 특별히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증가된 암의 위험성은 제 2형 당뇨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것은 제 2형 당뇨병환자에서 일반적인 비만과 체중증가를 반영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양한 연구들을 봤을 때 당뇨병과 암 사이에 의미 있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실마리가 있다. 첫째로 당뇨와 관련된 암의 종류는 비만과 관계된 것과는 다르다. 예를 들면, 방광암은 일반적으로 비만과는 관련 없다. 둘째로 통계학자들이 이미 논란이 된 혼동 현상을 고려해 연구 한 후, 그들은 여전히 제 2형 당뇨병과 암 사이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들은 이 결과를 다른 '후유증 위험' 탓으로 돌리고 있다.

2009년 여름, 당뇨병 전문 저널에 당뇨병 치료와 암 사이의 관계에 대해 역학적으로 연구한 4개의 논문이 공동으로 실렸을 때, 당뇨학계에서는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됐다. 이 페이퍼들은 '후유증 위험'에 대해 강조했는데, 그들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인슐린 아날로그, 글라진(란투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에서 암 위험성이 증가하는가?" 하는 것이다. 4개의 모든 논문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고자 했는데, 그것

을 명확하게 답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처음에 연구들은 미해결 상태로 남겨졌는데, 곧이어 긍정적인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2009년 12월, 북미와 유럽의 암-당뇨병 연구회는 함께 협력해 2010년 6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충분한 증거이지만 외인성 인슐린(주사제)이 암 발생 위험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관련성은 다른 인슐린 제제와 비교했을 때 인슐린 글라진에서 더 확실했다. 임상연구기간 동안에는 다음을 고려했다, "암의 위험성은 당뇨병환자가 실천 가능한 당뇨치료법들 중에 선택하는 데 있어서 주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되며, 연구를 위해 선택된 환자들은 더 주의 깊은 관찰을 해야 한다." 그 예로 유럽에서는 인슐린의 판매를 란투스에서 다른 인슐린 제제로 바꿨다.

그 역학적 연구들과 이후에 발표된 연구들에 의해 발생된 두 번째 질문은 암에서 메트포르민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과거 5년 이상 암 연구소로부터 나온 자료는 메트포르민은 암 세포의 성장을 막을지도 모른다고 나타났다.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메트포르민 사용은 암의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모든 연구들은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메트포르민이 당뇨가 있는 사람에서만 암의 위험을 줄이는 것인지, 당뇨가 없는 사람에서도 암의 위험을 줄이는 것인지 또는 이미 암이 발병된 환자에서 종양의 재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 인지이다. 이제 몇 가지 추적 연구가 진행되는데, 우리가 앞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당뇨병은 단일 질환이 아니다. 오랜 시간 대사적인 이상으로 발생한 혼합적인 만성 장애이다.

혈당조절은 당뇨병환자의 치료에서 중요한 목표이다. 그러나 이 조절이 암에 영향을 주는 지는 확실하지 않다. 적극적으로 혈당조절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한 논문에서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을 해준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혈당을 조절한 환자와 느슨하게 혈당을 조절한 환자 사이의 암 발생 위험의 차이에서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암의 숫자는 작고, 기간도 짧아 신뢰성이 적다.

사람들의 체중과 당뇨 유병기간 동안의 체중변화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들 수치는 종종 나이, 메트포르민 등의 복용 약물, 인슐린 제제에 따라 변화한다. 더욱이 많은 당뇨병환자들은 아스피린, 스타틴제, 항우울제 같은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함께 복용하기도 한다.

암을 유발시키는 위험성을 알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연구들은 암이 발생한 제 2형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John Hopkins Hospital에서 연구한 결과보고에 의하면 당뇨병은 암이 있는 환자에서 단시간 사망률과 장시간 사망률을 증가시키는데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늦은 진단, 치료선택, 치료 전후의 부작용, 보조제 선택, 사망과 관계된 요소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르다. 더불어 잦은 병원 검진에도 불구하고 당뇨병이 없는 여성 환자에 비해서 당뇨병이 있는 여성 환자가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검사율이 낮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행인 것은 지난 18개월 동안 두 개의 큰 규모의 연구들이 착수했다. 우리는 그 결과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환자들과 의료진의 임상적인 의문점들이 매일 나오고 있다.

주의할 것은 당뇨를 가진 환자들은 더욱 신경을 써서 암 검진을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유럽에서는 5천 3백만명 이상이 당뇨병을 가졌으며, 3천 2백 만명에게는 암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도 2천 3백 만명이 당뇨병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1천 4백 만명에서 암이 발생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므로 더 이상의 질병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당뇨병환자에서 기본적인 암 검진을 의무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출처/ 국제당뇨병연맹(IDF) 월간지
「Diabetes Voice」2010년 10월호